

Vol.335 September + October

세 아 가 조
세 상 을 아 름 답 게 하 는 사 람 들

김재록 의 사람들

최근 세아특수강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충주공장.
그곳에 강렬한 카리스마와 세심한 배려로 소문난 세아인이 있다.
생산능력 확대 마무리와 충주2공장 가동 진행의 구심점에서 젊음을
허양게 불태우며 충주공장의 미래를 만드는 임종혁 대리를 만난다.



이것은 속의 이름

포드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는
작은 전기회사에 견습공으로 취직해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지만
그 이후 두 번이나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한 포드자동차와 같이
두 번의 실패 역시
그를 무릎 꿇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나 후회를 하고 좌절하지만
그곳에 멈춰선 이는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멈춰설 것인가,
이름을 남길 것인가는
당신이 살아가는 매 순간 결정됩니다.

당신은,
세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남고 싶습니까?

세아의 역사

SeAH

세아가족
세아그룹 가족들을 위한 사보

Vol. 335
SEPTEMBER | OCTOBER 2011

Contents

Special Theme	02	프로로그	상상이 미래다
	04	깊은생각 열린마음	디지로그 시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06	세아의 생각	세아의 R&D 현주소를 읽는다
	10	why&how	최고 기업으로 가는 바로미터, R&D
	12	세아의 노하우맨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나만의 비법
Story in SeAH	14	SeAH Inside	세아베스틸 제12회 한국재무경영대상 혁신대상 수상 세아특수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16	SeAH Special Report	세아그룹 임원 리더십 교육 세아그룹 홈페이지 개편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24	Open Your Team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제품연구그룹 개발3파트
	28	Talk by Specialist	세아특수강 충주 자원혁신팀 혁신파트 임종혁 대리
Happy in SeAH	32	와이키키 시스템즈	우아한 세아제강 미녀 삼총사의 좌충우돌 승마체험
	36	와글와글	내가 만약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38	행복한 나들이	세아홀딩스 창립 10주년 기념 한라산 등반
	42	세아뉴스	
	47	사우동정	

〈세아가족〉 통권 335호 2011년 9+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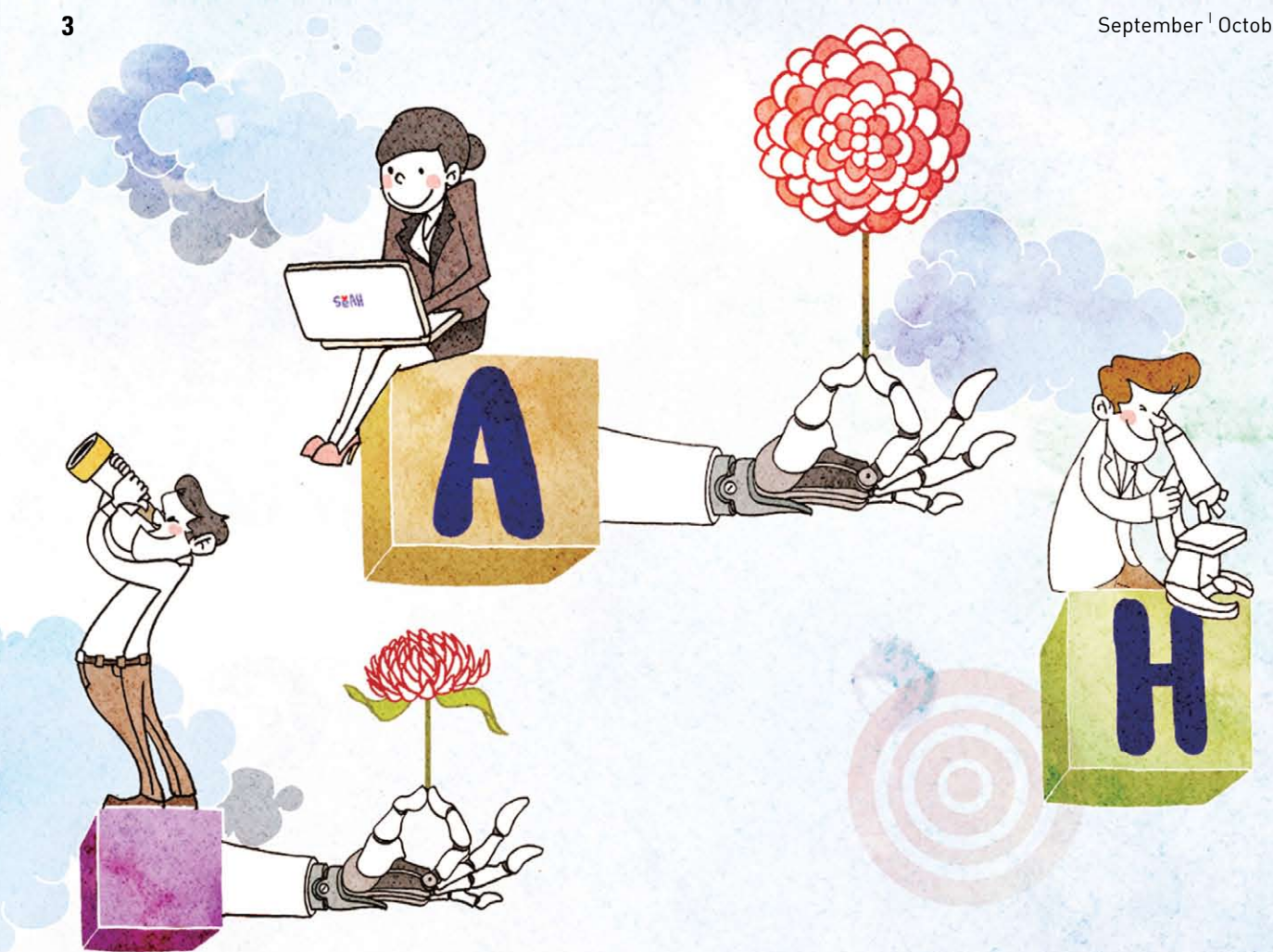
발행일 2011년 10월 12일 | 발행인 이운형

발행처 세아그룹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 홈페이지 www.seah.co.kr

기획편집 세아홀딩스 02-3783-8163

디자인·제작 하나로에드컴 02-3443-8005 | 표지촬영 다부스튜디오 02-766-8025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상의 미래

21세기는 의심할 필요 없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노하우에서 노웨어로 그리고 또 다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손 안에서 세계를 만나고
머릿속에서 미래를 만나는 세상.

어떠한 상상도 허황된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상이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기술이 바뀌어야 시대가 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기술이 발전해도 그것을 활용하여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기술자와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그 용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의 심지에 굳건히 자리한 기술자의 철학, 사고의 전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글 ● 편집실



디지로그 시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독점 기술, 노하우가 성공의 비결이던 시대

산업사회에서는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 즉 노하우(know how)가 중요한 시대였다. 그러나 정보 사회에서는 기술을 가진 사람보다 넘쳐흐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졌다. 그때는 그저 정보를 잘 선별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 정보화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않는 시대가 왔다. 물론 누구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취하고 골라내는 작업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보의 '소유'와 '활용'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가야할 길은 어디일까?

디지털 시대의 정보라는 것은 공기와도 같다. 우리는 컴퓨터만 켜면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에서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얻는다. 손 안에서 지구 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심지어 걷는 도중에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증강현실을 이용해 근처 맛집을 찾아보거나 일주일의 날씨, 뉴스를 확인하고 전세계 사람들과 그것에 대한 의견까지 나눌 수 있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지만 그것이 없다면 우리 생활의 질은 급속도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범람하는 정보의 흐름에서 좋은 정보를 골라냈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새로운 성공의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진 것이다.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전의 것들은 빨리 버리고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러나 아날로그적 가치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최첨단의 어떤 것들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역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차세대 성공의 DNA '감성'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작금의 디지털 환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에 문학박사 이어령 선생은 '디지로그'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했다. '디지로그'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이다.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을 의미하는 말이다. 디지털 기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아날로그로 보완하여 새로운 틈새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만으로는 인간의 감성을 채울 수 없다. 최첨단의, 최신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 즉,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 무엇을 이어령 선생은 아날로그 정서에서 찾는다. 타이핑한 글이 아닌 손으로 정성스레 쓴 글씨, 마음이 전해지는 사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향기, 사랑이 담긴 목소리다.

최근 드라마틱한 성공의 중심에는 늘 21세기적 기술과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 디지털 카메라의 기능 일부를 수동으로 만들고 필름 카메라의 전유물과도 같은 "찰칵"하는 효과음을 넣는다면

최첨단 기술의 하나인 디지털 영상기술 역시 3D(입체적)에서 4D(감각적)로 계속해서 인간의 감각을 깨우려고 하는 점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인류가 최첨단 기술을 통해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로의 귀향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는 깨달음은 아날로그적 감성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다. 가장 좋은 디지털이란 감성적이고 따뜻하며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그 중심에 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반드시 어떤 제품의 개선만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의 전환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차세대 기술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키워드는 '감성'이다.



최근 선진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랜 전통과 성실하고 신뢰를 주는 가치를 키워온 세아그룹은 꾸준한 몰입과 집중력으로 연구개발에 투자와 지원을 해왔다. 새로운 혁신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질주하는 세아의 R&D 현주소를 짚어본다.

정리 • 편집실



세아의 R&D 현주소를 읽는다

세계 최고의 강관 기술력을 키워가는 세아제강

50년 이상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강관 기술력 확보를 위한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아제강 기술연구소는 신재료, 제품개발, 설비기술, 용접기술 등 크게 4개 분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품개발파트는 차량 및 중장비 부품 경량화, 후육(厚肉)기술 개발, SRM 이중관 개발, 국산화 및 대체품 개발 등 미래 수요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각종 특허관리, 산업별 트렌드 변화 분석 등 집약된 정보 구축으로 고객 지향적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신재료 연구파트는 Life Line용 강관 개발, SeAH90, 1% Cr강, 내 Sour 강관 등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SeAH 100/110 등 첨단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산학연 공동 연구와 제철소 간 원활한 기술 교류로 철강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용접기술파트는 레이저 용접 등 High Grade 용접기술 개발과 ROI(Region Of Interest) 장치 등 각종 측정장치 개발로 미래 용접 기술력의 확보와 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연초에 세아업적상을 획득하며 용접분야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설비기술파트는 신설비, 신공정 연구와 함께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미래 수요 창출을 위한 최고의 설비 구현에 주력한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JCOE와 Q/T 신설,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이다.



독자적 강종 개발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는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은 국내 최대 규모의 특수강 기술연구소로서 강종 개발과 공정 연구, 관련 원소재 분석에서 신뢰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Total Analysis System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소재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특수강 소재 개발의 구심점인 세아베스틸 R&D의 가장 큰 특성은 '독자적인 강종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냉간기어용 고강도 극연질 강(신기술 인증[NET], 2010. 4), 고온 진공 침탄용 강(장영실상 수상, 2011. 5) 등 특수강 신제품 개발과 관련 기술 연구로 산업기술 혁신에 앞장서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현재 기술연구소는 '균일 정도와 우수한 가공성을 지닌 플라스틱 금형강' 등 강종 개발과 공정 기술에 관한 특허 29건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용 강재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기계, 에너지, 금형강 분야에 사용되는 고성능의

고합금강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고객사의 원가절감과 고성능 실현에 기여하여 입지를 넓히고 있다.

또한, 공정제어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베어링 강, 자동차 미션용 강의 재재물(介在物)을 최대한 줄이고 피로 수명을 개선하여 고청정화 실현으로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렸다. 이를 토대로 프리미엄급 베어링 강의 신규 확대 적용, 일반 베어링 강의 시장 확대를 목표로 제강 연주공정의 고청정 프로세스 구축에 한창이다. 단계별 계획이 완료되면 일본을 능가하는 SAMD2(산화물성 재재물 지수)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잉곳 주조로만 생산 가능하던 사출금형 스크류용 질화강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블룸 연주화하는데 성공, 특히 제품 직경이 최대 Ø260mm에 달하여 일본 제품의 직경 Ø180mm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제강 230만t 생산체제에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은 물론, 새로운 빌릿 연주공장 70만t 증설에 따른 품질 안정



화를 위하여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해석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통합예측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해나가기 위한 인재양성 차원에서 2010년부터 신입 사원에서 초급 관리자급 엔지니어 대상의 연간 교육 시스템으로 '전문기술인력양성시스템' 사업을 주관한다. 또한, 고급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산학 교류를 통한 석·박사 양성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고품질 친환경 강종

개발을 추진하는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의 주요 생산 품목은 CHQ Wire와 CD Bar로, R&D는 이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로 추진된다. 제강회사의 요청에 의한 신제품(강종) 개발, 고객 요구에 의한 신제품(강종) 개발, 기존 강종의 고부가가치와 타 용도를 위한 제품 개발이다. 이 중 최근 세아특수강은 고객과 제강회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고객 요청에 의한 신제품(강종) 개발로 CHQ Wire Part

의 8T급 비조질강 POSNH8이 있다. 현재 자동차 조향부품인 Tie Rod용의 소재는 선조질강인 ESW-85(Q/T Wire)를 사용한다. 이 선조질강(ESW-85)과 같은 수준의 강도와 인성, 연성을 가진 비조질강을 개발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최근 고객사의 단조 및 가공성 테스트를 거친 결과 선조질강 대비 양호한 평가를 받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 미주 TRW 양산 승인용 샘플을 제출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인이 완료될 예정으로, 모든 개발이 완료되면 세아특수강은 3년간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제강회사의 요청에 의한 개발로 CD Bar Part의 Pb-Free 쾌삭강인 POSCUT1B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Pb 쾌삭강은 연간 약 34천t 규모로 전량 수입한다. 기존의 이 Pb 쾌삭강을 대체하기 위해 POSCO와 함께 친환경 Pb-Free 쾌삭강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 고객사의 피삭성 테스트를 거친 결과 기존 Pb-Free 쾌삭강 대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품질 인증을 위해 국내의 전자회사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정밀 가전부품(PEM NUT) 용도로 기본 Pb 쾌삭강과 혼용하여 적용해보고 있으며,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Pb-Free 쾌삭강 우선 사용으로 설계도면에 반영하게 된다. 자동차 회사와는 곧 품질 인증이 완료되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납품하게 된다.

선행 연구와 고객 맞춤 제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번디

한국번디의 R&D 활동은 대내외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3개 분야의 연구팀이 각 분야별 연구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성과로 가전분야의 의류 건조기용 콘덴서와 냉장고용 Suction Tube(ALFOS), 자동차 분야의 HEAD REST 대형 튜브, LOW END 시장인 ALMECO 제품 개발로 소재 Product Portfolio의 라인업을 향상시켰다. 활발한 연구개발로 현재까지 출원한 특허는 국내 43건, 해외 44건, 실용신안 19건에 이른다.

연구1팀은 소형 튜브를 이용한 가전분야의 냉매 사이클 연구를 담당한다. 각종 실험장비를 보유하고 차별화된 시장 트렌드

를 선도하는 제품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에 의한 신제품, 국내외 고객사 요구에 최적화한 맞춤 개발을 추진하여 냉매 사이클 시스템 공급자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등 해외 요청에 의한 제품 개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연구2팀은 원소재와 표면처리 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국내의 생산공장의 신설비 투자와 Reengineering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개선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신규 공정 프로세스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고내식성 표면처리 신제품 및 대체재 개발에 한창이다. 고객이 원하는 고내식성의 친환경 경량 제품을 낮은 원가로 개발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이슈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 물질을 주시하면서 하이브리드 나노 결합 소재 등 표면처리 신제품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3팀은 자동차용 튜브소재 가공 연구를 담당한다. 한국번디가 목표로 하는 자동차 Tier1 진출을 위해 연구3팀은 자동차 신뢰성 시험실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중국 칭타오, 쑤저우, 포산 등 생산거점의 자동차용 튜브소재 가공사업을 지원한다. 향후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전기 자동차 등 새로운 분야의 신규 아이템 발굴도 적극 추진 중이다.

특수 용접재료와 친환경 용접재료

개발에 주력하는 세아에샵

세아에샵은 용접기술연구소 내 기초연구팀, 제품개발팀, 생산기술팀 등 세 분야의 연구체제로 R&D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구팀에서는 원재료 개발과 분석, 기초 기술을 연구한다. 제품개발팀은 용접재료의 업그레이드와 신제품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기술팀에서는 제조 공정의 개선 및 개발을 통해 생산라인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맡고 있다.

석유 소비량 증가로 지속적인 고유가 행진이 진행됨에 따라 심해나 한랭지역의 유전 개발을 위한 해양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해양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는 극저온 충격 인성과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 성능

을 갖춰야 하고, Pipe Line은 고인성, 고강도, 내부식성 등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고품질 용접재료의 수요가 증가 일로에 있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용접기술연구소에서는 국내 최초로 해양 플랜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시도하여 현재 해당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10℃와 -40℃ CTOD 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제품과 해양 Pipe Line용 강재인 ASTM A519 Gr 4130, Super Duplex Stainless Steel용 제품을 개발했다. 고객사의 적용 평가도 진행한 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편,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산업분야의 ECO 정책 흐름을 선도하고자 Low Fume, Low Spatter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용접재료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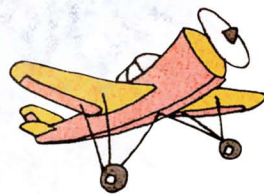


다수의 기업들이 성공을 위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먹고 사느냐’보다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화두가 된 지금, 해답은 여전히 R&D에 있다. 차세대의 R&D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은 현장에 있는 연구진과 기술자들이다. 기업과 현장 일선의 개개인이 공조하여 만들어가는 연구개발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할까?

글 ● 홍대순 (『제3세대 R&D 그 이후』 공동집필 저자)



최고 기업으로 가는 바로미터, R&D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기술경영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기업에 있어서 기술경영이라는 개념이 부쩍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에 있어서 기술경영의 의미는 무엇일까? 코닥기업의 사례를 들어보자. 코닥기업의 경우 아날로그 시대의 최강자였으나 디지털시대에는 최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을까? 디지털 기술이 부족해서 시장지배력이 약화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에 ‘기술’은 있었지만 ‘기술경영’의 미흡으로 디지털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기술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코닥기업은 아날로그 시대의 왕좌를 디지털 시대에도 향유했을지도 모른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간과 및 디지털 제품에 미온적 대응 및 상용화=기술경영의 미흡’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사례인 제록스는 어떠한가? 기존 주력 사업인 프린터에 안주하면서 제록스 PARC 연구소에서 기획·개발되고 있었던 PC 등은 상용화 관점이 결여되어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했다. 본사에서조차 크게 관심이 없어, 제록스가 세계 최초 PC 컴퓨터 회사로의 위상을 지닐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기술경영의 부재(不在)로 발생한 현상의 한 예이다. 기술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제록스는 PC 시대의 도래를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경제성 있는 가격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기업에 있어서 기술경영을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과 흥망성쇠가 좌지우지될 만큼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기술경영의 의미와 철학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커지고 비즈니스의 복잡성(Complexity)이 증대되면서 기술경영 및 R&D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R&D의 역할 또한 변모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사차원의 니즈(Needs)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나 전사 지원의 역할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시즈(Seeds)에 기반하여 오히려 전사 비전을 리드하는, 이름하여 ‘비전 주도형 R&D’로서의 역할 및 패러다임으로 변모되고 있다. 신일본체철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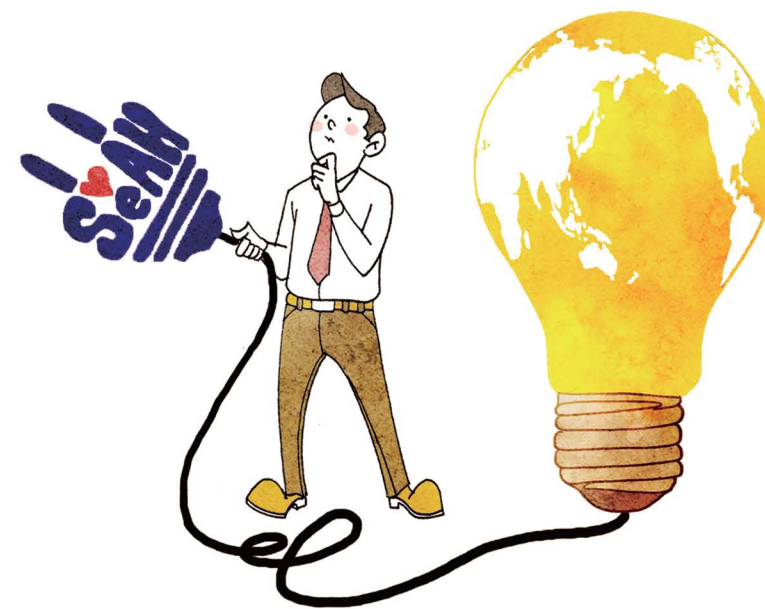
주로 철강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입했다. 언뜻 보기에 ‘철강사업’과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과는 연계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즉 기존의 철강 제련법을 활용하여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입하면서 기업의 비전을 새롭게 이끌어 가게 된 것이다.

성공적인 기술경영의 두 가지 비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술경영이 제대로 될까? 지금부터는 성공적인 기술경영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첫 번째, 돈 되는 R&D에 투자하라. 무엇에 투자할 것인가. 흔히 여기서 범하는 오류는 시장성을 간과하고 Tech-driven에 기반한 R&D를 수행함으로써 R&D ROI(Return on Investment)가 제로, 또는 매우 낮게 되는 경우이다. 결국 돈 안 되는 R&D에 투자하여 성과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 Tech-driven R&D가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Market-driven에 기반을 둘 때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와 연구원이 하고 싶은 R&D’가 아닌 ‘회사에서 필요한, 또 요구되는 R&D’를 해야 한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한다. 가끔은 필자가 연구원 분들께 “여러분, 내 돈이라면 지금 하고 계신 R&D 과제에 투자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연구 개발할 가치가 있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시장성이 있을까?’, ‘어떻게 더 빠르게,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등의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한 번 실행해보면 다소 의외의, 놀라운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개발의 목적은 무엇인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이기기 위해서는 ‘진정 제대로 된 인적자원을 보유하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연구개발은 업무 특성상, 예를 들어 열 명이 한 달 동안 풀지 못하는 연구개발상의 이슈를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연구개발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제대로 된 인적자원



을 확보하라는 의미가 모두 연구개발 수행 인력을 내부 직원으로 보유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즉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내부인력이든,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국내외 기업과의 제휴, 더 나아가 인수 등의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업이 부족한 연구개발 역량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기반해서 부족한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작전을 짜야 한다. 작전이 없다면 부족한 역량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량 분석을 해보니 해외 리드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해외 리드 엔지니어가 아닌 국내 경력직 허리급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를 뽑거나,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리드 엔지니어를 뽑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바로 이러한 것이 열심히는 하겠지만 경쟁에서 질 확률이 높은 R&D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열심히 하지만, 경쟁에서 이기는 R&D가 아니면 그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현재 매우 열심히,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일지는 몰라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미래는 없는 기업이다. 따라서 Top management는 이기는 R&D를 위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한다는 관점을 넘어 모셔오기에 온 힘을 다하여야 할 것이고, 스타급 인력을 영입함에 있어서는 사장월급 보다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모셔온다는 인식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우수한 핵심 연구개발 인력=기업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 지금 당장 질문해 보자. 우리 기업은 진정으로 이기는 R&D를 지향하고 있는지 말이다.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나만의 비법

‘냉정과 열정 사이’

우리 모두 사람인자라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감정에 흔들릴 때가 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억울함에 눈물이 흐를 때, 끓어오르는 즐거움도 자제해야 하고, 긴장한 탓에 사시나무처럼 떨려도 당당하고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때 이성과 감성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기만의 방법을 알아본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세아특수강 생산팀 윤종태 팀장

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즐겨라”는 말처럼 만약 내가 해결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면 즐기듯이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바람을 느끼면서 단전호흡을!

세아베스틸 단조팀 이영국 팀장

저도 다혈질 성격이라 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를 뜨고 옥상이나 바깥 바람을 쏘이러 나가서 전부터 해오던 단전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한 걸음 밖에서 들여다보기

세아에샵 재경팀 김재현 팀장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이 숨을 들이켜 크게 한 번 내뿜고, 먼 산을 바라보며 내 안의 나를 찾아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조금 비켜서서 문제를 들여다보면 화나고 답답한 일들이 아무 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죠. 마치 산을 오를 때 ‘이 산길은 나만의 발걸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고가는 많은 걸음들이 차곡차곡 다져져 확연한 길이 되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혼자가 아닌 함께 뒤편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화를 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VS

에스키모인들의 지혜

세아에샵 생산기술팀 광희진 팀장

에스키모인은 화가 났을 때 화가 풀릴 때까지 무작정 걷다가 그 지점에 막대기를 꽂아 둔다고 하며,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분노의 세기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작정 걷다 보면 분노를 조금씩 삭이게 되고 상황을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만의 세 가지 방법

세아제강 생산기술팀 배상수 팀장

1. 정말 화가 나서 참기 힘든 때에 3초만 참고 생각하기(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2. 메모나 스케치로 의견 및 업무 전달하기(감정이 묻어나는 말보다 내용전달과 의사표현이 명확함)
3. 사정거리(?)을 두고 얘기하기(주변을 의식하게 돼 목소리도 낮아지고 마음이 안정을 찾음)

천천히 스스로를 돌아볼 것

세아홀딩스 정도경영파트 김상진 파트장

감성과 이성이 부딪힐 때 저는 심사숙고한 다음 제 솔직한 의견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에는 무조건 관악산, 북한산 등 가까운 산을 찾습니다. 산에 가서 한 발 한 발 등산로를 내디디며 여전히 고민하는 것, 결정하지 못한 것을 곰곰이 되새겨보고 결정하고 돌아옵니다.



SeAH Inside 1

세아베스틸 제12회 한국재 무경영대상 혁신 대상 수상

세아베스틸이 '2010 제12회 한국재무경영대상'에서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어려웠던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으로 사상 최대 경영 성과를 추진한 세아베스틸의 성과와 미래성에 대한 수상으로, 앞으로의 지속 성장을 시사하기에 그 의미가 깊다.

10월 12일 신산업경영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제12회 한국재무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세아베스틸이 혁신대상(초대기업 부문)을 수상했다.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성의경 신산업경영원 원장, 송자 심사위원장, 김동욱 시상위원장 등 주최 측 인사들을 비롯해 세아베스틸, 대우조선해양이엔알, 포스코터미널, SK유화, KTCS 등 수상회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송자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발표에서 "2009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더욱 건실해졌다"고 이번 시상에 의미를 부여했다. 송 심사위원장은 세아베스틸이 수상한 혁신대상에 대해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증가율과 이자보상비율,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해 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매출액 1조8654억 원, 영업이익 2,008억 원을 달성하여 사상 최대 경영 성과를 실현하며 유동성 증가율, 수익성 증가율, 성장성 증가율에서 각각 평점 83.62, 98.58, 83.84를 기록"하는 한편, "대형단조사업 등으로 전략을 다각화하여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고 결과 보고를 통해 시사했다.

이번 수상은 세아베스틸의 '노력'에 대한 결실로, 이승휘 부회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계, 조선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해외 고급 특수강 시장을 적극 개척해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세아베스틸은 단조사업의 경우 화학 플랜트 및 원자력용 Shell 등 고부가가치 제품시장에 집중해 2012년부터 이익을 실현, 향후 6,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한국재무경영대상 기업 선정은 지난 8월 30일 송자 심사위원장 주재로 6인의 심사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대기업 종합 리포트를 토대로 엄격한 재무실적을 검토해 9월 종합대상 1개, 부문대상 4개, 혁신대상 4개 기업을 발표했다.



SeAH Inside 2

세아특수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세아특수강이 20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모범적인 기업문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을 성취한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세아특수강은 글로벌 기업을 향한 행보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세아특수강이 2011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9월 8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인증수여식에 참여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인적자원개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세아특수강의 이번 인증은 경영철학과 '최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종합부품소재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고품질의 제품 생산과 핵심가치 창출을 위한 건전한 인재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조직의 비전 달성을 위한 끊임없는 생산현장 혁신과 변화 노력, 투명 경영과 신뢰 및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하면서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 구성원의 생산성 향상 등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세아특수강은 "노사 상생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보상제도와 복리후생제도, CEO의 인적자원 개발 투자 의지를 반영한 중장기 HR전략 등 영역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업의 가장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인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7월 7일부터 2일간의 현장 심사를 거쳐 이뤄졌고, 161개 신청 기관 중 총 43개 기업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기업에게는 4개 부처 공동 명의의 인증패가 주어지고, 인증 로고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세아그룹 임원 리더십 교육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리더십 교육의 현장

새로운 변화의 계기 마련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세아홀딩스 이순형 회장이 격려차 세계경영연구원을 찾았다. 새로운 역사의 전반부를 써나갈 주역인 임원들의 리더십 역량 증대를 위한 교육이니만큼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순형 회장은 “미래의 경영환경은 훨씬 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것이므로 실질적 주역이 될 세아의 임원들에게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 교육과정이 자극제가 되어 정신적으로 재무장하고 새로운 자질과 기존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만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경영연구원 전성철 회장은 “임원이라는 직업의 본질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 교육을 통해 그 기준에 변화가 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원 리더십 교육의 목적이 통찰할 수 있는 지식과 그것을 현업에 적용하기 위한 것에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엿볼 수 있었다.

실용적 스킬과 접근방법 제시

세아그룹 임원 리더십 교육은 세아가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엔진을 가동하고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한다. 세아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인할 리더십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내부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아의 내외부 환경 분석과 Leadership Pipeline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가치와 도전, 인재육성, 목표달성으로 리더의 역량 향상을 위한 이슈를 압축했다. 이 세 가지 테마를 적용한 이번 교육은 임원들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스킬과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실무에서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부하직원의 잠재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지속 성장을 이끄는 코칭 역량을 비롯해, 철강제조업의 특별한 업(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일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세아그룹 임원 리더십 교육이 3박4일간 9월 21~24일, 9월 28~30일 2차에 걸쳐 서울 장충동 세계경영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그룹사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한 집체 교육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치와 도전, 인재육성, 목표달성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조직을 이끌어가는 임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Leadership Education



01 가치&도전 무엇으로 조직을 리드할 것인가?

지식사회라고 일컫는 오늘날, 강한 기업을 만드는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엇인가. 본 교육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경제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의식을 개혁하여 전사적 업무혁신의 기초를 확립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방법으로 가치관 경영을 제시했는데,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고 위대한 기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초석을 이룬다. 임원들은 위대한 기업의 사례와 실전을 통해 기업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직원들의 삶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 가치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가치관 경영의 핵심을 신뢰로 꼽고, 직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관성, 진정성, 공정성의 3가지 요소의 필요성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02 인재육성 (코칭) 어떻게 조직의 구성원을 리드 할 것인가?

인재육성 시간에는 조직과 조직 구성원 간에 지지(align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부하의 성과를 10배 향상시키는 코칭 리더십이 다루어졌다. 본격적인 코칭 이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상사와 부하 역할을 나눈 몇 개 팀의 코칭 실습이 진행됐다. 이후 좋은 코칭을 위한 5단계로 말문열기, 리뷰, 목표 및 계획 수립, 장애요소 제거, 행동 촉진과 동기부여 마무리 등을 학습한 후 사전 실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했다. 그 과정을 통해 코칭의 5단계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단계별 원리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기타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 등을 골고루 접했다. 강의와 실습을 바탕으로 임원들은 자신의 코칭 스타일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코칭 방법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03 목표달성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조직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와 실천하는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여기에 효과적인 합리적 의사결정,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성장형 인재의 채용과 육성, 변화관리 기술과 행동 설계 강의가 진행됐다. 우선 전략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위해 프레젠테이션 사례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비교하여 최적의 방법을 터득하고, 성장형 인재 채용과 육성 시간에는 기업을 두 배로 키우는 성장형 인재의 특징을 제시하며 채용과 육성 방법을 살폈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방법을 익혀 논리적이고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연극을 통해 변화관리에 있어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을 간접 체험하고, 현업에서의 실천계획과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했다.

세아그룹 홈페이지 개편

세아의 오리지널을 이야기하다



새롭게 구축한 세아그룹 홈페이지가 10월 5일 공식적인 첫 선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세아의 얼굴이자, 정보의 창이 될 새로운 홈페이지는 아이덴티티를 강조한 디자인과 콘텐츠로 파격적인 구성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세아 가족들의 두드러진 참여로 보는 재미가 풍성해진 세아그룹 홈페이지를 만나보자.

▶ 세아의 가치를 담다

세아그룹 홈페이지가 10월 새롭게 문을 열었다. 기존에는 세아홀딩스 웹사이트 그 기능을 대신했으나, 세아가 반세기에 걸쳐 소중히 지키고 발전시켜온 경영철학과 기업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해짐에 따라 세아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사이트 구축을 목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세아는 철강제조 분야의 전문화와 다각화를 추진하며 자립 성장을 일구어왔지만, B2B 업종의 특성상 대외적인 노출이 거의 없었다. 상황은 온라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로 차별된 이미지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다소 상반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최근 기업에게는 수익과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넘어 더 크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세아 역시 오랜 시간 자력 성장의 핵심이 되었던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소통 기반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철강제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세아의 경쟁력과 그것을 창출하는 세아인들의 뜨거운 열정이 담긴 세아의 오리지널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아가 가진 진정성과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차별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로 제작된 홈페이지에서는 100년 기업을 향해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강하고 젊은 기업, 세아를 만날 수 있다.

▶ Seek & Fe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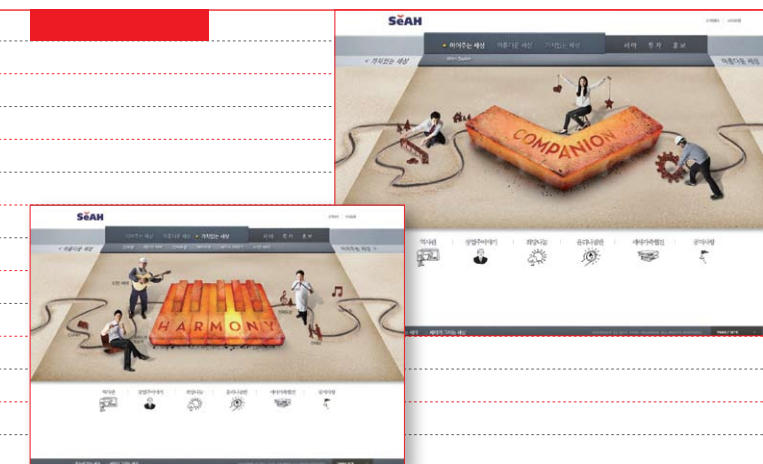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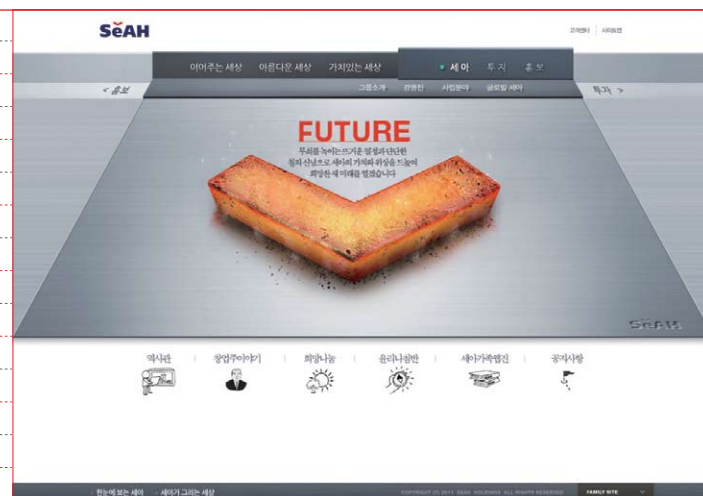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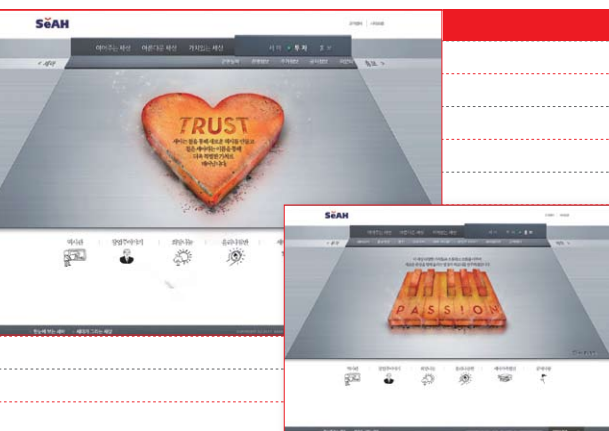
세아그룹 홈페이지 재구축의 컨셉트는 커다란 인상을 남기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세아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걸어온 브랜드로서 정통성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세아가 어떤 기업이며 우리 곁에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브랜드를 통해서 가치를 포지셔닝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접근에 의한 시각적인 콘셉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아의 이미지가 기억될 수 있도록 세아 특유의 심볼을 사용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메인 디자인은 세아라는 주제에 세아의 성장을 견인한 철강제조업을 상징하는 철을 접목했다. 붉게 달구어진 철의 모습은 곧 개혁과 도전을 일군 세아인들의 뜨거운 열정이자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굳은 의지이기도 하다. 이 메인 디자인은 감성과 이성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6개의 커다란 카테고리에 맞게 6가지 버전으로 제작되어 각각의 카테고리 디자인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공감을 이끌어낸다.

▶ 세아의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공간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콘텐츠 또한 세아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체 구성은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 특별한 세아의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은 크게 감성과 이성적 측면으로 접근을 시도했다.

감성적 측면은 세아가 창출하고 전하는 무형의 가치들을 담았다. ‘이어주는 세아’에는 “보이세요? 들리세요? 느껴지세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세아가 세상의 모든 아침을 함께 열어갑니다. 세아는 사람과 사람, 세상과 사람을 이어줍니다”라는 카피가 완성으로 이어지면서 세아가 만드는 세상이 그려진다.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마음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가지가 무성히 자라나는 희망 나무로 표현됐다. ‘가치 있는 세상’에서는 서로 돕는 사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열사별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입사를 희망하거나 세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아를 소개한다.

이성적 측면은 세아가 창출하는 가치와 크기를 소개하는 세아, 투자, 홍보로 구성됐다. ‘세아’에서는 세아가 영위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현황과 CEO의 메시지를 전하고, ‘투자’에서는 4개 상장 계열사 중심의 주가정보와 그룹의 경영실적 정보를 다루었다. 그리고 ‘홍보’에서는 세아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한다. 역사관에는 철과 함께 걸어온 세아의 반세기 역사가 담겨 있고, 세아의 기업문화와 경영철학의 토대가 된 창업주의 의지와 신념을 일화로 풀어낸 창업주 이야기가 소개된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하계수련회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우다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목적사업 중 하나인 장학생 하계수련회가 8월 18~19일 1박2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수련회는 체험과 관광 중심이었던 기존의 수련회와는 다르게 우리 역사 속 위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리더십을 배우는 교육적 테마가 접목됐다.

글 ●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 임이랑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출발

교육 위주의 수련회 일정을 공개하자 장학생들의 얼굴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막상 수련회가 시작되면 그 마음은 달라지리라 믿었다. 목적지는 한국 역사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테마로 한 통영. 지방의 장학생들은 하루 전날 서울로 올라와야 했다. 다른 학생들보다 불편했을 텐데 불평 한 마디 없이 미리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워하던 학생들이 고마웠다. 먼저 도착한 학생들과 집합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이번 수련회에서 이순신 리더십 교육을 맡아줄 이부경 박사와 멋진 리무진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무진 버스에 오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와야 한다는 긴장감과 장학생

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련회가 될까 하는 걱정, 무엇보다 장학생들과 만날 생각에 설렘이 가장 컸다. 오전 7시 30분 집결 시간이 되자 장학생들이 하나 둘 도착해 버스에 올랐다. 5월 장학증서 수여식 후 처음 보는 19기 장학생들, 가끔 오가며 인사차 들렀던 장학생들, 두 번째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고참 18기 장학생들까지, 이동시간 때문에 한 시도 지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모두 제 시간에 모였다. 각자 버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장학생들이 귀여웠다. 이렇게 우리는 첫 만남의 어색함을 여실히 드러내며 첫 번째 목적지인 진주로 출발했다.

진주의 맛과 멋을 만나다

올해 수련회도 자기소개로 시작됐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던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맛보기 강의로 이부경 박사의 이순신 리더십 강의에 들어갔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해져 서로 웃다가 출출해질 때쯤, 진주의 식당에 도착했다. 진주의 유명한 음식은 비빔밥이었다. 전주비빔밥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육회를 올린 진주비빔밥도 정말 별미였다. 식성 좋은 젊은이들에게 밥이 부족할까 넉넉하게 챙겨주신 사장님의 마음 씀씀이 덕분에 배부르고 즐거운 식사를 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바로 근처에 위치한 진주박물관으로 이동했다. 해군사관학교 정진술 교수의 역사 강의를 펼쳐졌다. 점심식사 직후이다 보니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 식곤증과 사투를 벌이는 학생들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정진술 교수의 역사시간에는 우리가 사극이나 소설로 잘못 인식하고 있던 역사를 재미있는 사례를 덧붙여 바로잡을 수 있었다. 강의 후에는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박물관을 견학했다. 이어 진주성, 축석루, 눈개바위 등 역사의 현장을 답사했다.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제대로 역사를 알고자 매 시간 열정적으로 임했다.



이순신 장군의 혼이 남아있는 통영

숙소가 있는 통영에서는 한진기 사무부총장이 미리 와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식사로 나온 회 정식은 정말이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푸짐했다. 세아의 장학생들은 파란 단체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셔츠에 새겨진 'I♥SeAH'처럼 학생들의 마음에 세아의 자리도 커졌으리라. 한진기 사무부총장이 진행하는 회사소개와 채용설명 시간, 장학생들의 눈에 빛이 났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했다. 설명회 후에는 19기 회장인 태운섭 학생의 주관으로 레크리에이션을 가졌다. 조를 나누어 우스꽝스럽고도 황당한, 그렇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함께 하며 처음 만났을 때의 서먹함을 저 멀리 날려버렸다.

통영의 별미인 줄복국으로 새 아침을 시작했다. 아침식사 후에는 한산도로 이동했다. 한산도는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제송당에서 박정욱 선생님의 야외 강의가 있었다. 한산대첩, 학익진 전법, 그리고 난중일기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성품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알게 됐다. 점심식사 후 수련회의 마지막 일정인 통제영 옛 유적지를 돌아보며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돌아오는 유람선 안 학생들은 많이 아쉬웠는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쉬지 않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했다. 우려했었던 처음의 실망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런 유익한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말에 뿌듯했다. 벌써 다음 수련회가 기다려진다.



드디어 기대하던 두 번째 수련회를 가게 됐다. 작년의 추억을 간직한 채 세아홀딩스 본사로 향하는 길이 즐겁기만 했다. 도착하여 지난 기수 친구들과 만나며 설렘은 더욱 커졌고, 새로 선발된 장학생 친구들과 만나게 되어 더욱 좋았다.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는 가운데 버스는 진주와 통영을 향해 출발했다. 버스에서의 자기소개 시간으로 어색함은 줄었다. 이번 수련회는 평소 수련회와 달리 1박2일로 이순신 리더십 캠프를 떠나는 것이다. 내가 줄곧 자라온 고향 진주를 향하는 수련회라 나에게에는 더욱 뜻깊었다.

버스는 임진왜란의 뼈아픈 역사를 간직한 진주에 도착했다. 진주성에서 이부경 박사님이 알려주는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접하며 진심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이어 버스는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으로 향했다. 통영에서는 평소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의 여러 흔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매우 보람찼다. 특히 한산도 대첩의 학익진 전술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제 곧 사회로 진출하는 나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뜻깊은 수련회이자 리더십 캠프였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좋은 인연과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서 마지막 수련회가 끝이 났다. 앞으로도 세아의 장학생으로서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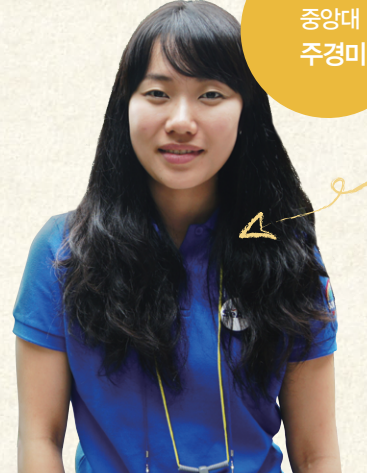
진주성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만나며



연세대
송영석

많은 행사와 연간 계획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수련회를 기다렸던 이유는 '처럼' 동기들과, 선배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척 기대됐기 때문이다. 사실 장학증서 수여식 때 장학생 동기들을 잠깐 만난 후에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친해지고 싶었다. 통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눠주신 간식을 먹으며 자기소개로 수련회가 시작됐다. 리더십 강의를 듣다 보니 어느새 진주에 도착! 맛있는 육회비빔밥도 먹고 박물관 관람도 했다. 통영에 도착해 해저터널에 가보고 회를 먹으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숙소는 정말 예쁜 펜션이었고, 방은 아늑한 복층이었다. 파란 세아 단체 티를 입고 같이 모여 시간을 보냈다. 한진기 사무부총장님의 말씀을 통해 세아에 대해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내가 세아의 장학생임에 더욱더 자부심이 생겼다. 그 후 조별로 나눠서 게임도 하고 OX퀴즈도 풀면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럼' 동기들, 선배님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편안한 소속감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은 수련회가 끝났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컸다. 이순신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 그 동안 익숙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그 리더십을 배워 남은 대학교 생활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진주, 통영에서 동기들과 함께했던 수련회에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잔뜩 얻어왔다. 곧 있을 봉사활동도 벌써 기대가 된다.

마음을 나누었던 시간들이 쌓이고



중앙대
주경미

세 아 해 암 학 술 장 학 재 단

리더십 체험 하계수련회를 다녀와서...

세아와 함께 한 총무공 리더십 체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같이 수련회를 떠날 생각에 기대가 컸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 일정이 발표된 후 기대보다는 실망에 좀 가까웠다.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 지난 수련회의 레크리에이션 사진을 보고 부풀었던 기대감에 비해 '이순신 파워 리더십 버스'라는 다소 교육적인 주제에서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1박2일의 일정을 끝난 뒤에는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고,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만이 남았다.

사실, 이순신 장군을 그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임진왜란에서 큰 활약을 펼친 영웅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영, 한산도 등지에서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부경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총무공만의 리더십, 창의 등을 고루 갖추신,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고 있는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진정한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러한 교훈뿐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장학재단의 여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었다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다. 출발 전날 밤을 함께 지내고, 버스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서로 어색해서 내용만 떨었다. 하지만 진주 육회비빔밥, 통영에서의 회정식, 졸복국과 같은 지역 별미와, 진주산성, 한산도와 통영의 여러 절경들은 우리를 절로 화목하게 만들었다. 또한 19기 회장이 준비해 온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인해 서먹서먹했던 우리들은 곧 친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정신없이 배우고 즐기다 보니 1박2일 동안의 수련회는 금새 끝이 났다. 이런 좋은 행사를 통해서 서로 같은 생각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1박2일의 짧은 일정에 아쉬움을 느꼈지만 다음 만남이 있으므로 후일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뒤로했다.

경희대
이요한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리더십

조선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빠져들게 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약 7년간의 전쟁 중 승리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발발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7년 동안의 해전에서 칠천량 해전을 제외하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모두 승리로 장식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장군의 정신을 알아보기 위한 통영과 한산도에서의 1박2일.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기에는 짧은 여정일 수도 있으나 그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을 어렵게나마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장군에 대해 지나친 미화와 영웅화, 나아가 순국사관으로 발전시켜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렵게 한다. 물론 장군이 극적인 삶을 살았고 놀라운 정도의 전공을 세워 국가의 위기 극복에 크게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두 침략국이었던 일본과 당시 조선의 상태를 냉철히 관찰하고 준비한 준비성이 있기에 가능했다. 장군은 왜란 1년 전부터 전쟁의 발발을 예견하고, 전라 좌수영으로 부임하자마자 화포 및 수군훈련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남해의 모든 해류를 조사 분석하여 각 해류마다 적절한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왜군이 적선에 부딪쳐 왜군의 배를 격침하는 방법(등선육박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 유명한 거북선 및 판옥선을 설계·제작했다. 그의 노력으로 우리 해군은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등 크고 작은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왜란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굳이 해외의 영웅을 찾지 말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까이 숨 쉬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리더십'을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심분 활용한다면 우리 장학생들의 취업이나 회사생활 혹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성균관대
태윤섭



멈추지 않는 뜨거운 엔진처럼 연구개발의 박차를 가한다

R&D CENTER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제품연구그룹 개발3파트



세아그룹에 더욱 놀라운 미래를 제시하고자 밤낮으로 연구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세아베스틸의 기술연구소 제품연구그룹의 멤버들이다. 현실과 이상의 경계선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제품연구그룹. 뛰어난 기술력과 끈기 있는 연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기계, 건설, 조선 등에 이르기 까지 영향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IR52 장영실상 수상한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은 기술연구소의 시험연구그룹, 공정연구그룹과 함께 세아베스틸 R&D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연구그룹은 세계 최고의 특수강 신제품 개발은 물론, 고객의 수주 규격 검토, 제조설계, 중요 품질문제 개선, 고객 불만제품 파손해석 업무를 담당한다. 그 중 개발3파트는 자동차용 강재 분야를 담당하며 관련 특수강 소재를 개발한다.

고부가가치의 특수강은 생산량의 42%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수록 더욱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므로 세아베스틸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그 임지를 굳히고 있다.

뛰어난 성과를 내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늘 새로운 목표를 위해 연구를 거듭하는 개발3파트는 고온진공침탄강으로 지난 6월 28일 22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IR52 장영실상은 신기술의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실현함으로써 산업기술 혁신에 기여한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과학기술처장관이 수여하는 상이다. 세아그룹을 통틀어 처음 수상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소재의 개발, 열처리, 부품의 완성을 통해 실제로 제품이 양산됨으로써 회사는 물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에 수상한다. 이 수상으로 세아베스틸은 경쟁력을 확보한 동시에 고객인 자동차 회사에도 한 단계 진보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온진공침탄강은 준중형 하이브리드용 무단 변속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폴리’의 소재로 기존의 가스침탄방식대신 고온진공침탄 처리 공법을 적용했다. 새로운 합금설계로 인해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오스테나이트 결정입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된 연구에 매진

세아베스틸 제품연구그룹은 제품 생산을 위한 검토와 분석에 있어 영업과 더불어 고객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을 한다. 올해는 설비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 지원에 더욱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외적인 관계의 유연성과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자동차용 소재 개발 전담파트를 구성하여 특수강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가 절감, 공정개선을 위한 저합금화와 적극적인 공정 생략 추진으로 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월요일 기술보고회를 열고 학술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회를 열어 깊이 있고 창의력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끊임 없는 노력을 쏟는다.

제품연구그룹 개발3파트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급강의 선진 기술 확보를 향한 열정과 합금 성분 및 공정 특성의 영향 분석을 통해 품질 향상을 꾀하여 고부가가치의 특화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수입재를 대체할 국산 고합금강 제조기술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 고자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제품연구그룹
왕성도 이사

INTERVIEW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힘은 사람”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함께’라는 가치를 알고 같이 성공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 제품연구그룹은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지만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같기에 하나의 팀처럼 세 파트의 공조가 단단하고 협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신뢰가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그간의 성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부서와 비교해도 자신 있는 우리 파트의 분위기

와 단결력은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우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가장 핵심은 ‘지식과 몰입’입니다.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방식과 지식 프로세스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빠듯한 시간 틈틈이 경쟁사를 벤치마킹하거나 각국의 학술논문을 통해 기술적인 부분의 감각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제품연구그룹 개발3파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한경섭 대리

자동차용 소입성 보증강
 개발 담당.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해결사

신정호 과장

개발3파트 업무 총괄.
 자동차용 강재 파트를 진두
 지휘하는 박학다식하고 많은
 경험을 갖춘 능력자

김동윤 과장

자동차용 신강종 개발 담당.
 냉철한 카리스마뿐 아니라
 포근하고 세심한 성격을
 가진 따뜻한 남자

백지숙 사원

소입성 보증강 외 자동차용
 강종 담당. 업무는 똑 부러지게,
 마음은 따뜻하고 착한
 세아베스틸의 여신

류영주 사원

소입성 보증강 외 자동차용
 강재 담당. 꾸준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목표를 달성해내는
 노력파 신입사원

이운재 사원

자동차용 소입성 보증강 담당.
 밝은 성격과 성실함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개발3파트의 활력소

왕성도 이사

제품연구그룹 업무 총괄. 업무에
 있어서는 카리스마와 엄격함을
 지녔지만 팀원들의 작은 일까지
 도 꼼꼼히 챙기는 다정하고
 친근한 그룹장님

따뜻한 감성과 차가운 이성을 겸비한 세아의 순정마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투우 경기는 소와 투우사의 대결이 자아내는 긴장감과 투우사의 날렵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최근 세아특수강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충주공장 생산능력 확대 마무리와 충주2공장 가동 진행의 구심점에서 젊음을 하얗게 불태우며 충주공장의 미래를 만드는 임종혁 대리를 만난다.

세아특수강 충주
지원혁신팀 혁신파트 대리

임종혁



의 지 의 밀 받 침 이 되 는 동 기 부 여 를 해 주 는 것

세아특수강의 기대주, 충주공장을 지킨다

세아특수강 충주1,2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기계부품 등의 소재로 쓰이는 냉간압조용선재(CHQ Wire)와 마봉강(CD Bar) 등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충주2공장은 올해 신설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안정되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가 하면, 세아특수강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종혁 대리가 몸담고 있는 충주공장은 뛰어난 품질과 경영능력 외에도 구조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여타 공장과 달리 소사장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는 세아그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외부업체와 협력하여 작업하는 공장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충주공장의 특이점을 장점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임종혁 대리다. 임종혁 대리는 입사 후 포항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세아특수강이 충주에 설립된 지 1년 후에 충주공장의 살림을 맡게 됐다. 지원혁신팀은 2011년 부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인사와 노무를 담당하는 지원팀과 사내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팀이 통합된 부서이다. 현장 개선활동, 교육 훈련, 방침 관리, 혁신 표준화 및 지도, 전반적인 소그룹 활동, 각종 이벤트와 행사를 추진하는 혁신 업무가 임종혁 대리의 역할이다. 현장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자신을 충주공장의 '엄마'라고 소개한다. 꼼꼼하고 계획적이면서도 편안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다.

그 한결같은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품질경영 실천 및 확산에 정진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고, 지난 6월 1일 2011 충청북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품질혁신 유공자로 선정됐다.

협업과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

충주공장은 2005년 준공된 이후 2007년부터 품질 분임조 활동을 시작했는데,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리팀의 협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2009년부터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10년 세아특수강 생산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1년 충청북도 품질경

영상 등을 수상했다.

현장의 시스템이 우리 몸의 뼈대를 이룬다면, 혁신 업무라는 것은 현장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혈관과도 같다. 맑고 건강한 피를 온몸에 돌게 하여 온기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공조를 이뤄가며 성과를 내기에 현장 직원과 관리자 등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러한 협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임종혁 대리의 세세한 손길이 충주공장 곳곳에 닿았기에 가능했다. 입사초기 생산부문에서 시작해 분임조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됐다는 점에서 공장의 운영과 가동방식에 대한 그의 전반적 이해는 매우 또렷하다. “현장을 아주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일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직원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더라도 멀리 보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요. 과정을 이해시키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하우는 따로 있다. 충주공장을 책임지는 8개의 분임조 중 가장 지원이 필요한 팀을 우선적으로 도와 빠른 개선과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야 늘 충주공장의 구석구석 다 마음을 두고 있지만 저 혼자 전반적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수박 겉핥기식의 지원이 될 것을 염려하여 순환지원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해내려는 만용을 부리기보다 현실적으로 한 계단씩 개선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이다.

업무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재미’와 ‘의지’라고 답했다. 재미와 의지라는 코드는 상반되는 듯 하면서도 상충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동기부여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죠. 말만 앞서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그런 의지의 밀받침이 되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고 또 스스로에게도 가장 필요한 가치입니다. 교감과 협력을 통해 동기를 유발하고 의지를 다져나가다 보면 팀원들의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모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 느낌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자 보람이죠.”

Profile

이름 | 임중혁

별명 | 4차원

[스스로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이 자꾸만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것 | 새로운 것들(something new)입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 방법들을 보면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싫어하는 것 | 매운 음식.

다른 건 다 참아도 매운 음식과는 도저히 친해질 수가 없네요.
상극(相極)입니다. 냄새만 맡아도 땀이 줄줄 흐른다니깐요.

좌우명 | “카르페디엠 + 안 되면 말고” 정신

매사에 최선을 다 하되, 불필요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빨리 접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얽매어 있으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되는 다섯 가지



나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힘을 냅니다. 운동 후 흘리는 땀, 그리고 힘든 일을 무사히 마쳤을 때, 샤워를 끝낸 후 마시는 맥주 한 잔은 피로를 다 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과 동생들.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밥 못나?”하고 물어주는 한 마디에 가슴 한편이 찡합니다.



친구

학창시절부터 인생의 절반을 가까이 해온 친구들 여섯 명이 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같은 나의 에너지원,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회사동료(동료)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제2의 식구들.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같은 것을 느끼고 이겨냈던 그들이 소중합니다.



책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책으로 만나는 것. 새로운 지식들을 접하고 배울 때마다 설렘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 정성을 들여
놓는다

여섯 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기타니 문화에 입문한 조치훈은
11세의 나이로 일본기원 최연소 입단 기록을 세웠다.
이후 신기록 제조기라 불리며
일본 프로바둑계를 평정한 그는 이런 말을 했다.

“바둑을 이기려고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놓다 보니까
기성도 되고 명인도 되고 그랬던 거죠.”

바둑용어 중에서
부득탐승(不得探勝)이라는 말이 있다.
승리를 욕심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조치훈의 말과도 일치한다.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돌을 놓는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인다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우아한 세아제강 미녀 삼총사의 좌충우돌 승마체험

두근두근 첫 승마체험

청명한 가을하늘에 눈이 부신 날, 세아제강에서 팀 내에서 놀라운 미모를 자랑하는 아가씨들이 대부도에 모였다. 세아제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탄소 강관을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글로벌한 업무만큼 평소 뛰어난 운동신경을 자랑한다며 승마체험에도 겁을 내지 않는 당찬 사우들이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는 대부도,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베르아텔 승마클럽에 도착했다. 말발굽 모양의 안내판이 일행을 반긴다. 클럽하우스에 들러 간단한 설명을 듣고 승마 전 모자와 조끼를 착용했다. 모자를 씌워주며 거울 대신 서로의 맵시를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오면서 기대 많이 했어요. 승마는 처음이라서 겁도 좀 나지만...”

준비를 끝내고 승마체험에 앞서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는다. “절대로 크게 고함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말들은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거든요.” 별로 겁이 나지 않는다며 큰 소리 치던 세 사람은 겁을 먹은 듯한 눈으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마방에서 그녀들과 함께 호흡을 맞출 늘씬한 말 세 마리가 그 자태를 뽐내며 우아하게 걸어 들어온다. 우리 동형의 천장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분위기를 더해 마치 신화 속의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와!”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함성을 질렀다. 제일 어리고 겁이 많은 이유란 사우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처음으로 말에 올랐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말에게도 이름이 있다. 말에게 씌우는 굴레마다 조그맣게 이름표가 붙어 있다. 최연정 사우의 말은 ‘럭키루키’, 이유란 사우의 말은 ‘보레’, 심다솔 사우의 말은 ‘루나’. 두근거리는 그녀들의 마음을 아는지 말들도 큰 눈을 깜빡이며 긴 꼬리를 찰랑찰랑 흔든다.



쫘뻑하게 세운 허리, 단단하게 고삐를 잡고 말과 교감을 하는 스포츠, 승마. 예부터 승마(乘馬)는 귀족들의 스포츠로 여겨져 왔지만 요즘의 승마는 조금 다르다. 도심 가까운 곳에 다양한 승마장이 있기 때문. 세아제강 수출2팀의 미녀 삼총사가 오늘 용기를 내 승마체험에 도전한다.

사람과 말이 대화를 나누는 법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은 자세교정. 승마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살아있는 존재와 함께 하는 운동이기에 말에 올랐을 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머리와 어깨, 허리, 발뒤꿈치를 일직선으로 해 곧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다들 긴장해선 지 표정이 굳었다. 심다솔 사우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한일(一)자로 꼭 다물었다.

“자, 중심을 잘 잡고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체를 쭉 펴고 시선을 높이 보세요. 당당하게!” 코치님의 말씀에 순간적으로 세 사람의 몸이 쭉 펴진다. 이제부터는 걷기 수업이다. 출발할 때는 발로 말의 배를 살짝 차주면 된다. 아직 처음이기에 각각 한 명씩 코치님이 고삐를 잡아준다. 교육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다. 두 바퀴 정도 돌자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최연정 사우가 묻는다. “혹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가끔 있는데 다치진 않지만 많이 아파하시죠. 하하.” 코치님의 농담에 최연정 사우도 긴장이 풀렸는지 웃기 시작했다. 긴장으로 딱딱해진 얼굴들이 서서히 풀려갈 때쯤 칭찬하기와 정지하기를 배웠다. “말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섬세하게 느껴요. 말의 등 위에 그냥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과 대화를 나눈다는 생각으로 타세요. 이 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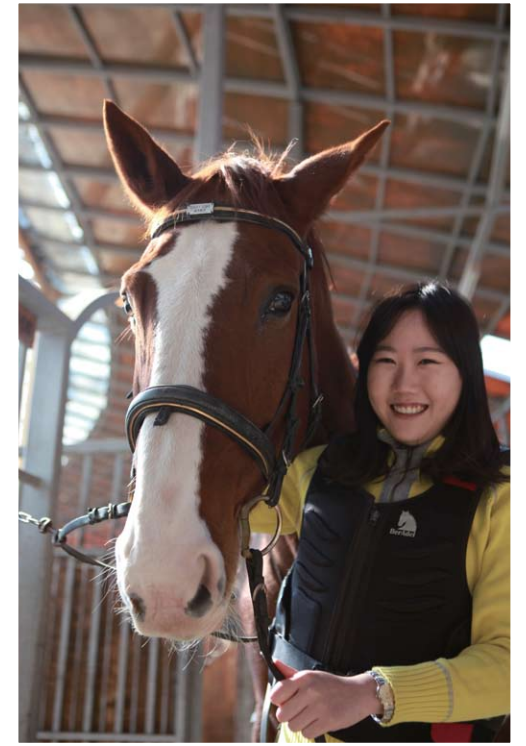


이유란 사우

석들도 ‘아,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좀 다뤄주는구나’하고 느낄 거예요. 갑자기 말이 방향을 바꾼다거나 빨라져도 ‘어머머’하고 놀라지 말고 무릎으로 앉아주면서 뒤로 살짝 누우면 저절로 고삐가 당겨집니다. 그러면 말도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하는 거죠.”

명랑소녀 셋, 서로에게 물들다

어느덧 체험시간이 끝나고 마장을 빙 둘러싼 110개의 마방을 둘러봤다. 빛깔도 곱고 눈이 맑은 예쁜 말들은 생김새도 제각각이다. 세 사람은 사진 찍기 삼매경에 빠졌다. 서로 말을 닮았다며 놀리는 통에 주변에 있던 코치님들마저 웃음을 터트린다. 안전하게 태워준 말들에게 간식을 주기로 했다. 당근을 사와 ‘럭키루키’에게 내민다. 겁 많은 동생들은 뒤에 숨고 용감한 언니 최연정 사우가 앞에 나섰다. “자, 착하지. 내 손은 먹지 말고 당근만 먹어.” “와, 잘 먹는다” 깜짝 놀라고 툭하면 깔깔대고 웃는 모습이 명랑한 소녀들 같다. 야외로 나오니 잔디마당에 하얀 울타리가 있고 그 너머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기도 하고 마음껏 뛰놀고 있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경력도 나이도



심다솔 사우



베르아델 승마클럽

자외선 차단 특수유리로 제작된 초대형 원형돔에서 세계 철 연제나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승마클럽. 드라마 <궁>, <아가씨를 부탁해>, <꽃보다 남자>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1일 체험 코스부터 클래식 승마 클래스까지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주 소 안산시 단원구 대부 남동 말부흥 7-11
문 의 032-882-2255



최연정 사우



제각각이지만 서로 알콩달콩 토닥이고 챙기는 것만 봐도 이 세 사람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알 수 있다. 어른이 되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힘이 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지나온 세월만큼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받기에 더더욱 벽이 두꺼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빨리 친해져야겠다는 목적의식이나 이유 없이도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 보니까 서로 물이 드는 것처럼 서서히 친해졌어요.” 조금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무리하게 가까워지려 애쓰지 않아도 어느샌가 힘들 때 손잡을 수 있는 동료가 되어 있더라는 그들의 말은 꾸며내지 않은 동료애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도 화제는 범위를 가리지 않고 요리조리 튀었다. 웃고 장난치다가도 소규모 공장을 보자 이유란 사우가 수출팀 베테랑 최연정 사우에게 묻는다. “어? 저 공장도 철강 분야 공장이에요?” 아직은 경력이 오래지 않은 두 사우에게 쉬운 예를 들어가며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최연정 사우. 따뜻한 우정과 강한 팀워크를 통해 앞으로 세아제강 수출2팀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대해 본다.

후대에 길이 남을 성군이 되고 싶소

세아특수강 대구영업소 김현태 과장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성군이 되고 싶다.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주는 거다. 임시, 출산, 취업, 물가 문제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 모든 제도가 국민들이 삶을 살아가고 생업을 일구어 나가는데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라는 절로 발전할 것이다. 아, 내 마음은 벌써 왕이 된 것 같다.



현빈보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한국번디 수출팀 김성소 대리

집에서도 왕이 아니거늘 어찌 왕이 된 상상을 품어본단 말인가? 상상도 하기 전에 사극툰으로 말을 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상상을 해본다면, 대한민국 모든 지폐에 내 얼굴을 넣을 것이다. 발행되는 수량에 맞춰 초상권 비용을 받으면 국가 재정도 문제없다. 동시에 내 사인 한 장이면 현빈 씨인 100장과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해야지. 움하하! 내가 바로 우주대스타!



그런데 왕이 사람들 마음속도 바꿀 수 있나요?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서석민 대리

인의(仁義)와 사람을 중시하는 유교문화를 다시 전파하리라.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며 스승을 존경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전부 감옥에 보내서 콩밥을 먹게 해야지! 착하게 살자. 착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드는 게 내 전략이다. 그런데 왕이 사람들 마음속도 바꿀 수 있을까? 하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순수함과 정직함을 간직하고 싶어요

세아에샵 호남영업소 황인오 소장

내가 왕이라 생각하니 왠지 즐겁다. 그러나 뒤이어 답답함이 밀려온다. 솔직함과 정직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나도 어릴 적엔 순수하고 깨끗했는데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할수록 점점 때가 묻는 것 같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순수했으니 일단 국회의원 자격을 유치원생으로 제한하는 거다. 그러면 자신의 이권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흐린 판단을 하진 않겠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상상만으로도 왜 이렇게 후련한 걸까? 하하하!



광개토 대왕님 정말 멋지십니다

한국번디 업무지원팀 문정원 대리

타임머신을 타고 삼국시대로 돌아간 듯한 상상. 일단 멋진 갑옷과 칼을 차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치르겠다. 먼저 나라의 수도를 남으로 청해진(완도), 북으로는 평양성(평양)으로 정한 후 각각 남쪽의 일본을 정벌하고 북으로는 만주까지 영토를 넓힐 계획이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말도 안 되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혼쭐을 내 주겠다. 대한민국을 절대강국으로 만들어온 백성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요즘 대하드라마 <광개토대왕>에 심취한 어느 챌린지 리더가'



생생 Talk, 생생 Action

내가 만약 우리나라의 왕이라면?

황당한 상상이라고 비웃지마시라! 때론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상이 창의력을 높이는가하면, 잠시나마 일상에서의 탈출로 신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이제는 사라진 왕이라는 존재.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직 절대왕정이라면? 평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다. 내가 바로 왕이라면? 세아 가족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세아베스틸 기술연구소 김기호 대리

좀 오랫동안 고심했는데 크게 세 가지를 주도할 계획이다. 첫째로는 국회를 연명별로 대표를 선발하여 구성하겠다. 얼마 전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의 시청자 투어 3탄처럼 골고루 선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먼저다. 둘째는 나라의 근본,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 관련 모든 규제를 폐지해서 다국적 기업이 활기를 띄고,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여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야지. 그 세금으로 나라의 곳곳을 가득 채워 옛날의 흥길동처럼 백성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방력을 강화하여 어느 나라도 쉽게 알볼 수 없도록 힘을 키울 것이다. 그런데 말하고 보니 이거 조금 선거 공약 같은데 이번 대선에 나가볼까?



하늘과 바람과 바다,

세아홀딩스 창립 10주년 기념 한라산 등반

그리고 제주도



윤동주 시인은 ‘둘 다’라는 시에서 ‘바다도 푸르고 하늘도 푸르고’라는 표현으로 자연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드러낸다.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제주에서 치러진 세아홀딩스 한라산 등반은 자연의 광활한 위엄 앞에 하나 되어 새로운 다짐과 출발을 기약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렇게 시작된 ‘화합의 장’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만큼이나 조화로웠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명처럼 나를 밝힌다. ‘나는 신입사원이다’. 신입사원의 눈에서 바라본 세아인들의 모습을 공개한다.

글 ● 세아홀딩스 홍보파트 안현호



실탐방안내소에 다다르자 각자 준비한 짐을 챙겨 간단한 준비운동을 했다. 등산이라곤 뒷산을 올라본 정도의 아마추어가 대부분이라선지 구령에 맞춰 하는 동작도 어색하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용기를 북돋우는 사이 어느덧 어색함도 사라지는 듯했다. 청량한 아침공기에 머릿속까지 맑아진다.

>>기암괴석의 절경, 잊세오름

영실탐방안내소에서 영실휴게소까지의 거리는 2.4km. 약 40분이 소요된다. 이미 몇몇 세아홀딩스 가족들은 짚쑈를 장난을 시작한다.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은 4인분의 점심 도시락과 간식 등 각종 물품이 들어있는 꾸러미를 들고 산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게임에서 진

>>출발 전의 어색함과 설렘

9월 2일 오전 6시 40분 김포공항. 아직은 이른 시간이다. 뜻밖에도 3조 조장으로 발탁된 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동료와 선배들이 모두 도착했는지 노심초사한다.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사람들은 하나 둘씩 얼굴을 비추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눴다. 어제 새로 산 등산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몇몇은 사진을 찍으며 등반에 앞선 설렘을 드러낸다. 어느새 탑승시간이 됐다. 제주행 표를 발급받고 부랴부랴 게이트로 향한다. 오랜만에 드넓은 창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기분이 좋다. 제주에 당도할 무렵, 기내 ‘뽕기’ 이벤트가 있었다. 1등으로 당첨된 정도경영파트 김창문 수석은 세아홀딩스 식구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다.

오전 8시 30분. 제주에 도착한 일행은 버스 안에서 오늘 등반 일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오늘 우리 일행의 목적지는 제주 중앙부에 솟아있는 산, 한라산이다. 높이 1,950m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절경으로 유명한 산. 이 중 영실코스는 한라산의 여러 등산로 중 남서쪽 코스에 해당한다.

한라산 등반로 입구까지 약 1시간의 소요시간 동안 선발대가 준비한 도시락을 먹었다. 아직 등산을 한다는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버스에서 먹는 도시락은 일품이었다. 등반의 시작, 영



사업개발파트의 김윤성 사원은 줄지에 짐꾼이 됐다며 벌써부터 힘들어한다. 모두들 이마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채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영실휴게소-병풍바위-윗세오름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한라산 등반의 하이라이트다. 아직 가을이 완연하지 않아 선지 단풍보다는 여름 끝의 신록이 우리를 반긴다. 1994년 7월 이후 정상 부근의 자연휴식년제 실시로 현재는 윗세오름까지만 탐방이 가능하다고 한다. 도합 5.8km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이 길은 바다와 같이 푸르고 넓은 하늘, 명화보다 우아한 산세와 나무들, 그리고 제주 고유의 기암들이 한데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좋은 것엔 항상 고통이 뒤따른다고 했던가? 가파른 산길을 숨 가쁘게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있자니, 그야말로 '괴로우면서도 즐거운'이라는 뜻을 담은 'bittersweet'이란 단어가 온몸 곳곳에 퍼져있는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갑자기 홍보파트 송준걸 대리의 허벅지에 쥐가 나서 사진을 찍다 주저앉는다. 옆에서 등반하던 경영혁신파트의 여운상 수석은 황급히 송 대리의 다리를 주무르며 응급처



치를 한다. 곧이어 프로 산악인 뽀치는 성과관리파트의 임재원 수석이 송 대리 다리 곳곳에 스프레이 파스를 뿌리며 전문가 못지않은 '포스'를 내뿜었다. 이렇듯 서로를 도와가며 세아홀딩스 임직원 전원은 무사히 윗세오름에 도착했다.

>> 함께 산을 오르며 하나 되어

어느덧 12시다. 도시락 이외에도 오늘의 깜짝 메뉴인 '사발면' 덕분에 모두들 점심 삼매경에 빠진다. 이제 내리막 코스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에 내 마음도 여유를 찾는다. 내리막 코스는 윗세오름-남벽분기점-평귀대피소-돈내코탐방안내소로 장장 4시간이 걸리는 9.1km의 등산로이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고 내려가는 길은 더 쉬울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으로 의기양양했던 일행의 얼굴은 곧 울상으로 바뀌었다.

완만한 내리막이 아닌 사방으로 불규칙하게 뒤섞인 돌과 돌 사

이를 밟으며 전력을 다해 내려가니 무릎이 시큰거린다. 3시간 정도 강행군을 계속했더니 울고 있는 동료도 있는 것 같다. 이 와중에도 강철체력을 자랑하는 임재원 수석은 고립된 몇 사람들을 챙기느라 오르막과 내리막을 몇 번씩 왕복하고 있다. 대단하다. 체력의 한계점에 도달해 잠시 쉬어 보이지만 쉬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더 낫다. 도착해서 차가운 콜라를 들이키는 상상으로 얼얼한 무릎을 달래본다. 목적지인 돈내코탐방안내소까지 무조건 전진이다.

한 시간 가량 열심히 걸었더니 목적지가 눈앞에 보인다. 고된 등반에도 애써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 걷는 세아홀딩스 식구들이 자랑스럽다. 도착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았다. 먼저 도착해 빨리 편히 쉬고 싶을 텐데도 뒤늦게 도착한 이들을 위해 나란히 서서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기다리는 동료와 선배들의 모습에 마음속이 뜨겁다. 함께 고생했다는 의미다. 환호성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고 등반 내내 간절히 기다렸던 시원한 콜라를 들이키니 천국이 따로 없다. 체력은 바닥나고 무릎도 말썽이긴 만 나 역시 아직 등반을 마치지 못한 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버스 주변에서 기다리며 서성인다. 30분 정도 흘렀을까. 저만치서 나머지 세아홀딩스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등반했기에 안도감과 뿌듯함이 차오른다. 서로를 배려하며 이끌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문에서 스스로를 단순히 신입사원이라고 말했던 필자의 표현을 정정한다. "나는, 세아인이다."

뒤에서 묵묵히 이번 일정을 책임지신 인재개발파트의 배상현 수석님, 경영지원파트의 김현석 사원, 사업개발파트의 박지은 사원, 홍보파트의 임이랑 사원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전합니다.



SeAH NEWS

2011
SEPTEMBER+OCTOBER
VOL. 335

» Group News

세아그룹 지면광고 제작



세아그룹의 이미지를 홍보할 새로운 인쇄광고가 제작됐다. 단순 철강그룹의 이미지를 벗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진화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50년 동안 철강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는 종합인프라기업으로 세아를 소개하고 있다. “당신의 생활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혁신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Key Copy로 세아의 가치가 만들어내는 라이프사이클을 표현한 자판기와, 혁신을 강조한 캥거루를 소재로 한 2편이 제작됐다. 특히 자판기 광고안의 경우, 서울권에서 근무하는 계열사 직원들이 모델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새로운 지면광고는 4분기부터 대외적인 세아그룹 이미지 광고로 사용된다.

» 세아제강

포항공장, 자주보전기능사 교육 실시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설비능력이 우수한 오퍼레이터 육성을 위해 폴리텍VI 대학 포항 캠퍼스에서 9월 16일까지 자주보전기능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설비업무에 특화된 오퍼레이터 전문 과정으로 약 5개월간의 이론교육이 끝나면 총 71명의 수료자가 국가 자격인 설비보전기능사에 도전하게 된다. 세아제강은 이러한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무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

창원공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세아제강 창원공장 세아름 봉사회는 9월 8일 창원지역 내 장애인 보호시설 소망원과 아동보호시설 동보원을 각 각 방문하여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창원공장은 매월 전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봉사회비로 적립하고 있으며, 마련된 기금으로 성금과 물품을 정기적으로 전달하여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세아베스틸

세아베스틸 권정태 차장, 한국IR대상 Best IRO상 수상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IR협회의 주최, 한국거래소 후원으로 열린 제11회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세아베스틸 재무팀 권정태 차장이 Best IRO상을 수상했다. 권정태 차장은 2005년부터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에게 IR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해왔다. 권정태 차장은 “이번 수상은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에 대응한 결과이며, 회사의 뛰어난 실적이 반영된 노력의 결실”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70만 규모의 제2빌릿 연주기 신설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70만 규모의 빌릿 연주기, 정련로(LF), 진공탈가스(VD) 등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특수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50만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산공장에 70만의 신규 연주기가 가동되면 그만큼 추가 제강능력을 확보하게 되어, 공정에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반제품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국내 최초 극저수소 잉곳 생산기술 상용화 성공



세아베스틸은 국내 최초로 “SAVD(Seah Advanced Vacuum Degassing)”라는 새로운 잉곳 생산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했다. SAVD는 세아 신 진공탈가스법으로도 불리는데, 진공상태에서 용강을 비산, 낙하시키는 공법의 대형단조용 기술이다. 원자력용 단조품, 발전용 로터(Rotor) 및 압연용 백업 롤(Back Up Roll) 등 단강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잉곳 제조기술이 필수적이다. 특히, 잉곳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 잔류 수소가스를 극저로 제어하는 이 기술은 잉곳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하다. 주조팀 이병호 팀장은 “이번 기술의 상용화로 고품질 잉곳 생산이 가능해져 고급 단강품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형 단조품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기관 투자사 군산공장 견학

하나투어증권권을 비롯한 3개의 기관투자사 담당자 7명이 9월 2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특수강과 대형단조 공장을 견학하며 특수강 사업의 발전성과 대형단조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보였다. 기관투자사 담당자들은 “깔끔하고 안전한 조업 모습과 함께 특수강 생산라인, 높은 설비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특히 “세아베스틸의 13,000t 프레스의 웅장함은 타 사와의 규모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어 고급 대형단조시장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군산지역 하천 정화활동 실시



세아베스틸 연합봉사단은 9월 19일 군산 은파 유원지 수변 도로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신원삼

연합봉사단 회장을 비롯한 50여 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은파 유원지 수변도로 5km를 청소했다. 신원삼 연합봉사단 회장은 “연합봉사단은 자발적으로 발족된 사내 동호회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연합봉사단은 올해 2월 발족됐으며, 매월 1~2회 무료급식 배식이나 복지시설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사우 부모님 초청孝행사 개최



세아베스틸은 9월 22일 사우 부모님을 초청하여 효(孝)행사를 개최했다. 단조사업부 3층 세미나실에서 시작된 이번 행

사는 회사 홍보 비디오 시청, 회사현황 설명을 비롯해, 현장 순회와 중국 기예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사우 부모님들은 “평소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즐거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군산 12개 고등학교 장학금 전달



세아베스틸은 9월 8일 군산교육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군산지역 12개 학교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홍수 전무와 최진심 군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12명의 고등학생에게 총 36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사를 주관한 인사노무팀에서는 “이번 장학금은 사원들의 우수리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상 학교나 장학금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세아베스틸은 여직원회인 여우비는 9월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방문한 복지시설은 모세스 영아원, 삼성애육원, 구세군 군산후생원, 신애원 구세군 군산목양원, 나포길벗 공동체, 신광모 자원, 신광자립원 등 총 9개 시설로 1,102개의 수건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여우비 직원들은 “명절을 맞아 사우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선물”로,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세아특수강

포항공장 본관 신축



세아특수강은 10월 18일 새로운 포항공장 본관 건립을 축하하는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본관 건물은 약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설됐다. 지하에는 쾌적한 공간의 식당과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대강당을 마련했다. 1층은 방문객들을 맞이할 접견실과 세아특수강의 역사와 발전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2~3층은 사무실로 사용한다.

한국금속대전 2011 참가



세아특수강은 일산 킨텍스에서 9월 28일부터 10월1일까지 4일간 열린 ‘금속 산업대전 2011’에 참가했다. 금속산업대전은 국내 최대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전시회로 세아특수강은 올해 첫 참가하여 2011년부터 충주2공장을 통해 새롭게 생산하는 Bar to Bar와 Peeled Bar 신제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4일의 전시기간 내내 국내외 수많은 파스너 및 와이어 업체들을 비롯한 일반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세아특수강 부스를 방문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사랑의 라면’ 후원



세아특수강은 추석을 앞두고 9월 7일 ‘사랑의 라면’ 200박스를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연합회를 통해 포항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된다. 세아특수강

은 직원들의 모금과 회사 지원금으로 ‘사랑의 라면’ 후원활동을 추진했으며, 매년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을 위한 후원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이사회 개최



세아특수강은 8월 19일 충주공장에서 2011년 상반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순형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참석해 2011년 상반기 경영실적을 논의하고 충주1,2공장을 둘러본 후 새로운 충주2공장 완공을 기념하는 식수를 진행했다. 그룹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은 특히 Bar to Bar, Peeled Bar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한 충주2공장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충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제품을 통해 세아특수강이 ‘글로벌 종합부품소재 기업’을 향해 크게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JFEBS, 일본 대지진 복구 후 첫 납품



세아특수강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JFEBS가 일본 대지진 피해 후 8월 18일 처음으로 세아특수강으로 납품하는

원재료 2천t을 선적했다. JFEBS의 센다이제조소는 3월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공장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4개월간의 복구 작업 끝에 7월 20일 생산라인을 재가동했다. 재난 발생 직후 세아특수강은 JFEBS에 피해 복구를 위한 3천만 엔의 지원금과 전 직원의 격려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보냈다. JFEBS 관계자는 “세아특수강의 도움과 격려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며 아직 복구가 100% 완료되지 못해 생산량이 많지 않지만, 생산한 제품을 세아특수강에 최우선으로 납품할 계획”이라고 밝혀 양사의 각별한 우호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충주2공장 Bar to Bar 신제품 첫 출하



세아특수강은 7월 22일 신제품 Bar to Bar의 양산품을 첫 출하했다.올해 4월 준공된 충주2공장에서 생산하는 Bar to Bar는 Peeled Bar와 함께 2011년부터 신규 생산되는 신제품이다. Bar to Bar는 기존의 CHQ Wire와 CD Bar에서 사용하던 Wire Rod가 아닌, 압연 봉강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Shot Blast로 표면 스케일을 제거하고 인발 다이스를 통과시켜, 원하는 수치와 향상된 표면 조도를 갖추게 되

는 인발 봉강 제품이다. 자동차용 랙바(Rack Bar)와 냉간단조품, 산업기계용 연마 봉강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11월에는 Peeled Bar 생산을 앞두고 있다. 세아특수강은 기존 CHQ Wire와 CD Bar 등 자동차, 전자, 기계의 소형부품 소재에서부터 Bar to Bar, Peeled Bar 등 고부가가치 대형부품 소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부품소재 기업’을 향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한국번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1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한국번디가 선정되어 고용노동

부 평택지청장으로부터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상생 발전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23년 무분규 사업장 실현, 열린 경영과 다양한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적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에 이르렀다. 전규동 대표는 “노사 화합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사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는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nsung Metal 인수

한국번디는 9월 20일 인도의 냉장고 및 에어컨용 부품회사 Hansung Metal Pvt. Ltd를 인수했다. Hansung Metal은 인도의 노이다와 첸나이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인도 삼성과 캐리어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국번디는 인도시장의 성장 잠재성과 중요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회사 인수를 추진했으며, 인도시장 진출을 통해 시장 선점은 물론 인접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공장, 광주MBC 경제캠페인 인터뷰 방송



한국번디 광주공장은 8월 광주MBC가 추진하는 경제캠페인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터뷰에 참여했다. 방송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파트너십 사업과 과거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이력 등 한국번디의 노사문화가 소개되어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노사가 함께하는 사내 밴드 모습, 임화규 광주공장장과 김원영 노조지부장의 인터뷰 등을 담은 내용이 8월 한 달간 방영됐다.

» 세아에샵

그린오피스 우수기업 선정



세아에샵은 9월 23일 창원시가 후원하고 녹색창원21 실천협의회에서 주최한 ‘그린오피스 경연대회’에서 8월 그린

오피스 실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받았다. 7월 28일부터 진행된 이 대회에 참가한 세아에샵은 8월 한 달간 절감 전력을 측정한 결과, 절감시간 881시간 31분 19초, 전력 절감량 171kw/h, CO2감축량 78.9kg을 기록하여 그린오피스 참가기업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교육용 실험실습재료 목포대 기증



세아에샵은 10월 5일 목포대학교에 교육용 실험실습 용도로 사용할 DS7100 등의 용접제품을 기증했다. 이날 목포대

학교 고석규 대학총장, 최일 공과대학장, 박종환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세아에샵 유덕상 대표를 비롯한 1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품 기증에 대한 서명식을 거행했다. 세아에샵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여름휴가 포토 이벤트 행사



세아에샵은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촬영한 가족사진을 게시하고 우수 사진 작품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포토 이벤트 행사를 실시했다. 약 40여 명이 출품한 이번 행

사에서 직원들의 스티커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를 한 재경팀의 서민균 사원 외 6명의 출품작이 우수작으로 선정돼 문화상품권이 전달됐다.

»» 세아 E&T

태양광 발전 국제 공동 심포지엄 참가



터보사업부 태양전지 개발팀은 9월 28일부터 약 30일간 부산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6회 한-중-일태양광발전 국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본 심포지엄은 한·중·일 세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다수의 DSSC 석학들이 참여해 연료감응형 태양전지의 비전을 재확인했다. 세아 E&T는 이번 심포지엄 참가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물들을 살펴보고 세아 고유의 태양전지 신기술 개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 세아 M&S

Fe-V(페로바나듐) 시제품 생산 성공



세아 M&S는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6월부터 페로바나듐 생산 연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페로바나듐은 탄소강에 합금철로 첨가되는 물질로, 높은 경도와 인장력이 필요한

공구강, 항공기, 미사일의 구조재료나 핵연료 피복재와 같은 특수강 제조에 사용된다. 세아 M&S는 기존 주력 상품으로 몰리브덴 정광을 배소하여 제조한 MoO3, 페로몰리, 몰리브리켓이 있었으나, 9차례 시험반응을 거쳐 페로바나듐의 시험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사업 다각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제품 시험반응에서는 바나듐 80%, 금속회수율 93% 이상의 성과를 얻었으며, 완제품 생산을 위한 본 반응에서는 금속회수율 98% 이상이 가능하여 상업생산을 위한 비전을 얻어 향후 생산설비 투자를 통한 시장 판매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 사원 사내교육 실시



세아 M&S는 9월 24일부터 12일간 실시되는 여수공장 연례 정비기간을 활용하여 정비 첫날인 26일 여수공장 전 직원

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그룹 경영방침, 전기안전교육, 직업의식 함양 및 변화관리 마인드를 주제로 한 공정관리와 품질관리 교육, 산업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의식 고취, 변화의 필요성, 직업의식과 가치관, 강한 리더 강한 직원, 공정 및 품질 관리, 도요타 7대 낭비 원인과 대책을 다루어 임직원들이 변화에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를 함양하는 시간이 됐다.

»» 강남도시가스

취약계층 방문 이웃사랑 실천



강남도시가스는 추석을 맞이하여 9월 6일 도시가스 공급 권역 내의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30세대를 방문하

여 생필품을 전달하고, 가스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현장의 고객센터 검침원 및 안전점검원의 추천을 받거나 회사에서 명절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던 세대들로 선정됐다.

하반기 가스안전 가두캠페인 실시



강남도시가스는 10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본사 전 임직원 및 고객센터 센터장 등 약 8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봉, 구로, 구일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가두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으로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와 가스레인지의 안전사용 요령 및 자율 안전점검 요령 등의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 세아로지스

2011년 경영목표 달성 워크숍 개최



세아로지스는 8월 20~21일 양일간 충남 금산에 위치한 하이비전센터에서 “2011년 경영목표 달성 워크숍”을 실

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8개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영 실적 및 부문별 달성 전략을 발표했으며, 경영 전반에 대한 전 임직원들의 이해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1인 혁명가가 되라!>는 도서를 주제로 한 독서토론회를 통해 이상을 현실화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류재섭 대표는 상반기 실적에 대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도전2056>에 전 임직원들이 매진하여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사우동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세아인들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세아홀딩스

- 입사** 안현호 홍보파트

세아제강

- 입사** 심다슬 본사 수출2팀¹ 유찬욱 포항 기술연구소¹ 임재정 포항 기술연구소¹ 최성욱 포항 생산기술팀¹ 김태우 포항 생산기술팀¹ 이성수 군산 생산2팀
- 결혼** 전경수 본사 아연도강판영업팀¹ 두동규 포항 기술연구소¹ 이기호 군산 업무지원팀¹ 길장훈 강관2 생산팀
- 출산** 지규용 본사 경영기획팀¹ 유창균 본사 회계팀¹ 임대남 군산 생산2팀¹ 한병호 군산 생산2팀
- 조의** 정만길 포항 생산1팀(장인)¹ 김정완 포항 생산2팀(모친)¹ 김연종 포항 생산2팀(장인)¹ 김국형 창원 품질경영팀(장인)

세아특수강

- 입사** 이동환 충주2 생산팀¹ 권기범 충주2 생산팀¹ 이형문 충주2 생산팀¹ 전창연 충주2 생산팀¹ 노연욱 충주2 품질보증팀
- 결혼** 허 서 포항 생산팀 ●출산** 손영하 부산영업소¹ 유성원 수주관리팀
- 조의** 김진호 충주2 설비팀(조부)¹ 주상렬 포항 건설TFT(모친)¹ 이종탁 충주 설비팀(모친)

한국번디

- 입사** 최완재 평택 연구3¹ 이 찬 평택 경영기획 ●결혼** 강영일 평택 생산 ●출산** 차범호 평택 공장혁신파트¹ 김재수 평택 생산물류¹ 김선애 평택 연구2 ●조의** 정진문 평택 생산(매형)¹ 정진철 평택 생산(매형)¹ 김병화 평택 생산(형님, 백모)¹ 남윤성 평택 품질경영(조부)

세아에샵

- 출산** 김주병 기초연구팀 ●조의** 박재용 설비관리팀(장인)¹ 김광만 구매물류팀(장모)

세아이앤티

- 입사** 강병문 화공기기 영업1팀¹ 조경재 화공기기 영업2팀¹ 최범효 화공기기 생산2팀¹ 이상혁 산업기기 영업팀¹ 황순하 터보 연구개발팀¹ 임신록 터보 태양전지개발팀¹ 최희정 터보 태양전지개발팀 ●출산** 정주량 터보 연구개발팀¹ 천제영 대만지사
- 조의** 윤여덕 터보 생산팀(부친)

세아엠앤에스

- 출산** 마태오 브리켓설비파트 ●조의** 여성진 배소설비파트(조부모)

강남도시가스

- 결혼** 문병준 공급지원팀 ●조의** 강준구 고객센터팀(부친)

세아로지스

- 출산** 변재환 포항운영파트¹ 박효정 인천물류센터

Quiz ¹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다른 사진에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 주세요.
정답표시는 엽서에 해주세요.

원본



문제



SeAH Reader's

사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세아가족들의 땀과 노력에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자기 신뢰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 점수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보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광주 광산구 우산동

유익한 내용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2011년 세아그룹 상반기 신입사원 연수' 편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미래의 세아그룹을 이끌어갈 26명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열정, 자신감 있는 모습에서 세아의 무궁무진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고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비상하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최영선 경기 시흥시 조남동

'함께 키워 나가는 신뢰관계' 공병호 소장의 칼럼이 좋았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기본 덕목이 신뢰라는 메시지가 와 닿았습니다. 회사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기사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정 난 서울 구로구 구로5동

* 사보참여 안내

〈세아가족〉사보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세아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에 특별한 행사나 사연이 있는 사우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 바라며,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세아가족〉은 세아인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아인들을 위한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문의 : cmk@seah.co.kr / 02-3783-8163

* 지난호 퀴즈 정답



* 지난 퀴즈 당첨자

김영희 대구 남구 봉덕동
소은희 부산 금정구 부곡동
김옥남 경기 광명시 철산3동
박선덕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유성원 세아특수강 수주관리팀
정 난 서울 구로구 구로5동
김재영 대구 중구 남산3동
최영선 경기 시흥시 조남동
최연정 세아제강 수출2팀
김영희 광주 광산구 우산동

* 〈세아가족〉 사보기자

박승균 세아제강 인력개발팀(본사)
최영훈 세아제강 업무지원팀(포항)
이인호 세아제강 업무지원팀(창원)
임아림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군산)
선민석 세아제강 업무지원팀(강관2공장)
이정화 세아베스틸 기획팀
이동진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서울)
이태원 세아특수강 지원혁신팀(본사)
박수연 한국번디 경영기획팀
손은숙 세아에스 경영지원실
김종훈 세아메탈 경영기획팀
이상기 세아이앤티 플랜트사업지원팀
김민구 세아엠앤에스 서울사무소
이근기 강남도시가스 경영관리팀
이지훈 세아로지스 업무지원팀
권용재 해덕스틸 경영지원팀
김승렬 드림라인 경영지원팀

세아가족 신바람 캠페인 「책임」 편



“제가 해보겠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세철 씨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제가 해보겠습니다!”입니다.

늘 같은 업무, 같은 일과라는 생각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해주었으면...’하고
슬쩍 미뤘두었던 적은 없나요?

오늘은 당신의 처음 그 모습처럼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모
3
레!

세아의 매력남
순정마초의 화려한
액션을 만난다



세아특수강 충주 지원혁신팀 혁신파트 임종혁 대리

스페인 투우사의 마초적 매력과 꼼꼼하고 섬세한 매력을 가진
이 시대의 마지막 순정남, 세아의 순정마초!